



# 농수산물 수출

## Zoom In 103호

I 신제품 포도 '홍주씨들리스' 베트남 시장에 선보여



II 국화 새 품종 에이티(aT) 화훼공판장서 평가회



III '22년도 국산 포도 중국 수출을 위한 영상현장조사 실시



# 농수산물 수출 Zoom In 103호 2022. 11. 1(화)

‘22.10.31까지 농수산물 수출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한 100.3억\$

## 부류별

신선	가공	수산
0.1% 1,254.5백만불	7.0% 6,104.0백만불	20.4% 2,673.8백만불
+ 닭고기, 고추, 사과 - 인삼류, 김치, 파프리카, 딸기	+ 면류, 과자류, 음료, 주류 - 켈런, 인스탄트면	+ 참치, 명태, 대구, 연어 - 굴, 어묵, 오징어

## 국가별

\*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b>미국</b> 경기침체 여파로 소비심리 위축되면서 증가세 둔화 1,378.0백만불(0.8%↑)	김치(4.3%), 배(15.3%) 음료(13.2%), 라면(4.3%) 버섯(△18.7%), 닭고기(△15.7%) 소스류(△1.8%),
<b>중국</b> 제20차 당대회 개최 및 고강도 방역 조치 시행으로 감소세 1,838.5백만불(13.9%↑)	명태(196.4%), 라면(27.2%), 조제분유(5.2%) 인삼류(△17.3%), 밀(△7.0%)
<b>신남방</b> (ASEAN + 인도) 신선 증가세 지속되고 있으나 가공 증가폭 줄어들면서 증가세 둔화 2,100.1백만불(12.2%↑)	참치(35.9%), 음료(20.1%) 닭고기(96.5%), 인삼류(58.4%) 딸기(△6.0%), 리큐르(△16.7%)
<b>일본</b> 작황 부진, 단가 인상으로 신선 감소세 지속되고 있으나 가공 호조 증가세 견인 1,832.7백만불(9.1%↑)	인삼(14.0%), 연초류(34.2%) 과자류(28.8%), 김(6.2%), 파프리카(△8.3%), 김치(△25.0%) 참치(△8.7%), 라면(△4.9%)
<b>EU + 영국</b> 유럽 주요 항구 냉장·냉동 컨테이너 통관 강화와 소비위축으로 신선 감소세 심화, 전체 증가세 둔화 641.3백만불(13.2%↑)	김치(1.2%), 과실류(2.5%) 인삼류(22.0%), 참치(11.7%) 버섯류(△23.5%), 김(△9.9%)

☆ : 15%이상 / : 5~15% / : 0~5% / : 0~△5% / : △5~△15% / : △15%이하

**품목별 이슈**

\* 실적 : '22.1.1 ~ 10.31

**□ 인삼**

- (중국 65.5, △17.3) 고강도 방역 조치의 지속 기호품 소비심리 위축에 따라 감소세
- (베트남 34.7, 77.7 ↑) 합리적인 가격과 섭취의 편의성을 높인 간편 소비제품 인기
- (미국 26.0, △7.4)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둔화로 감소세

**203.0백만불 (1.1% ↑)**

주요 수출국 : 중국(65.5백만불, △17.3%), 베트남(34.7, 77.7%), 일본(29.3, 14.0%), 미국(26.0, △7.4%), 대만(18.3, 28.2%), 홍콩(11.2, △37.2%)

**□ 장류**

- (미국 22.1, △5.1) 재고 누적으로 수입 물량 조절하면서 감소세
- (중국 10.7, △16.8) 코로나 재확산으로 봉쇄가 반복되면서 통관·물류 애로 및 소비·판매 감소
- (필리핀 6.5, 48.2 ↑) 성수기 소비 활성화 및 B2B 수요 증가로 인한 대용량 제품 중심 수출 증가

**83.3백만불 (△2.7%)**

주요 수출국 : 미국(22.1, △5.1%), 중국(10.7, △16.8%), 필리핀(6.5, 48.2%), 일본(6.2, △2.5%), 캐나다(4.8, 25.8%), 베트남(4.0, 36.6%)

**□ 포도**

- (베트남 6.5, 22.1 ↑, 홍콩 5.0, △7.9) 한국산보다 품질은 떨어지지만 가격은 1/3 가량 저렴한 중국산 샤인머스켓의 생산량 증가로 7~8월부터 주요국 (홍콩, 베트남) 시장 선점하면서 한국산 수출 증가세 둔화

**22.5백만불(0.6% ↑)**

주요 수출국 : 베트남(6.5, 22.1%), 홍콩(5.0, △7.9%), 미국(2.4, 35.3%), 중국(1.8, △54.6%), 태국(1.2, 29.2%), 싱가포르(1.2, △18.1%)

**□ 김**

- (미국 131.8, 6.0 ↑) 조미김, 스낵김, 김부각 등 다양한 맛의 스낵용 리테일 김제품 인기
- (일본 102.8, 6.2 ↑) 코로나 이후 가정용 B2C 조미김 수요 증가로 수출 증가
- (중국 86.0, △24.9) 상하이 봉쇄 해제되었으나 외부활동 제약 및 소비심리 둔화로 감소세

**565.6백만불(0.5% ↑)**

주요 수출국 : 미국(131.8, 6.0%), 일본(102.8, 6.2%), 중국(86.0, △24.9%), 태국(37.1, 10.1%), 러시아(32.6, △13.7%), 대만(26.0, 17.6%)

☆ 자세한 동향 관련 내용은 aT kati(www.kati.net) > 수출 동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농수산물식품 수출 Zoom In>은 월 1회 발행됩니다 (문의처 : aT 수출기획부 061-931-0817,8)

## 농진청 이슈



### 신품종 포도 '홍주씨들리스' 베트남 시장에 선보여

농촌진흥청은 경북 상주시 화동면에서 생산된 '홍주씨들리스'를 19일부터 22일까지 호치민 식품음료국제전시회(HCMC FOOD EX 2022)에 출품해 베트남 시장에 선보인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포도 신품종 '홍주씨들리스'는 껍질째 먹을 수 있고, 은은한 머스켓 향이 난다. 당도 18.4브릭스, 산도 0.62%로 단맛과 신맛이 잘 어우러져 식미가 우수하며 10월 초순에 수확한다. 최근 '홍주씨들리스' 재배면적이 확대되면서 생산량이 증가하고, 적극적인 기술지원으로 품질이 향상돼 국내 및 해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진흥청은 우리나라 포도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샤인머스켓'에 이은 수출 유망 포도 신품종을 육성하기 위해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포도수출연합(주)과 협력해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시범 수출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신품종 포도의 수출 확대를 위한 상품화 기준을 마련하고, 수출국을 늘리기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 국화 새 품종 에이티(aT) 화훼공판장서 평가회

농촌진흥청은 우리 국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를 늘리기 위해 21~25일, 가을 국화꽃 축제가 열리는 서울 에이티(aT) 화훼공판장(서초구 양재동)에서 '국산 국화 우수 계통, 품종 평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기존에 개발한 우수 국화 15품종과 새로 개발한 국화 15계통 등 총 30종의 국화가 화려함을 뽐냈다.

특히 2022년 품종 출원한 '금빛누리', '반짜기'를 비롯해 국산 대표 품종인 '백강(2015년 개발)', '글로리핑크(2013년 개발)'를 활용한 화환과 장례용 제단 등 다양한 아이디어 작품 25점을 소개했다. 중형 '원교B1-208' 계통은 연한 분홍색 홑꽃으로 생장이 좋고 일 년 내내 잘 자라며 꽃이 일찍 피는 특성(개화반응 주수 7주)으로 내수는 물론 수출용으로도 유망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인 '원교B1-209' 계통은 주홍색 겹꽃으로 생육이 좋고 색이 안정적이며 기존에 볼 수 없는 꽃색을 지녀 새로운 소비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원교B1-210' 계통은 중 소형 연노란색 꽃잎에 중심부가 초록색인 아네모네\* 형태로 국내 소비자가 선호하는 꽃 모양을 지녔다. 일 년 내내 꽃색이 안정적이어서 재배 농가와 유통시장에서 인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교B1-208>



<원교B1-209>



<원교B1-210>



<'신화환'>

☆ 농진청 이슈 문의 ☆ 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 063-238-0673

## '22년도 국산 포도 중국 수출을 위한 영상 현장조사 실시



- ◇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국산 포도 중국 수출을 위해 수출 선과장 및 과수원에 대한 한-중 영상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최근 중국은 자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우리 수출 선과장 및 과수원의 코로나 감염 예방 조치를 확인한다고 알려 왔으며, 기존에 등록된 선과장과 과수원은 수출이 가능하나 신규인 경우에는 이번 현장조사 후 수출을 가능함을 통보하였다. 이에 검역본부는 중국 측이 지정한 선과장 및 과수원에 대하여 영상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중국 측은 우리 수출 선과장 및 과수원들이 코로나 예방 및 양국이 합의한 검역요건을 잘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전하였다.

## '22년 국산 사과, 참다래 대만 수출을 위한 대만검역관 현지조사 실시



-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10.24.~10.29. 국산 사과, 참다래 생과실의 대만 수출을 위한 대만 검역관의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한-대만 양국은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현지조사 권한을 위임받아 실시하였으나, 최근 양국의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대만 측이 자국검역관을 파견함에 따라 배에 이어 사과, 참다래의 검역요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로 한 것이다. 검역본부는 대만검역관의 현지조사 통해 사과, 참다래 수출단지에서 양국이 합의한 검역요건을 잘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으며, 국산 배, 사과, 참다래 생과실이 대만으로 원활히 통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외국의 농산물 수출검역요건은 농림축산검역본부([www.qia.go.kr](http://www.qia.go.kr)) > 수출식품검역정보 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식물검역 이슈는 월 1회 발행됩니다. (문의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 054-912-0623)